

“KCC, 나에게 제일 중요한 팀”

프로농구 FA 최대어 송교창
원 소속팀에 애정 드러내

KCC, 잔류에 총력 방침
FA 대상 선수들 25일까지
10개 구단과 협상 가능

프로농구 자유계약(FA) 최대어 송교창(25·KCC)이 “모든 면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면서도 “KCC는 나에게 제일 중요한 팀”이라며 원 소속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송교창은 11일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2021 FA 설명회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아직 연타이 온 팀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 53경기에서 평균 15.1점 6.1리바운드 2.2어시스트를 기록한 송교창은 KCC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고졸 출신으로는 최초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하며 고졸 신화를 썼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 발가락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기 못해 우승권에는 끼지 못했다.

송교창은 “첫 FA다 많이 떨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직 연타이 온 팀은 없다”고 답답히 답했다.

송교창은 고교 졸업 후, 곧장 프로에 데뷔해 20대 중반으로 젊다. 2015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KCC의 부름을 받았다. 다른 FA 경



송교창(25·KCC)이 원 소속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 5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전주 KCC 이지스와 안양 KGC의 경기에서 송교창이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다.

쟁자들과 비교해 매력적인 요소다. 또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선 리그 최정상급으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2019년 김종규(DB)가 청원 LG에서 원주 DB로 이적하면서 받은 보수 총액 12억7900만원을 넘지 않겠다.

2021~2022시즌부터 셀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초과가 가능한 소프트캡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송교창의 몸값이 상승할 요인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송교창은 김종규의 최고액을 넘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최고 연봉이라는 건 선수라면 모두 받고 싶은 게 분명하다”면서도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챔피언결정전이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쉬면서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어 FA 선택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농구와 외적인 부분 등 생각할 게 많다. 한 가지를 딱 말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원 소속팀 KCC에 대해선 “나에게 원 소속팀인 KCC는 정말 중요한 팀이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팀이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LG 서울 SK 등이 송교창을 영입할 만한 팀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KCC는 송교창 잔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교창을 비롯한 FA 대상 선수들은 오는 24일까지 1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선 각 구단이 25~27일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최근 인천에서 열린 제22회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전북체고 사격팀이 공기권총 단체우승과 개인총합 2위를 차지했다.

전국대회서 ‘금빛 총성’

전북체고 사격팀, 공기권총 단체우승·개인총합 2위

전북체고 사격팀이 전국대회 단체전에서 금빛 총성을 울렸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열린 제22회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전북체고 사격팀이 공기권총 단체우승과 개인총합 2위를 차지했다.

먼저 남자 고등부 공기권총 단체전에 출전한 김강현, 정우진, 방민혁, 김명찬은 1703점을 획득해 서울체고와 광주체고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김강현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도 238.5점을 기록,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북체고 사격팀 이윤희 코치는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승리 요정’ 김광현, 무패 행진 이어갈까?

오늘 오전 밀워키전 출격

KK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올 시즌 5번째 등판에서도 ‘등판 = 승리’ 공식 이어갈 수 있을까. 김광현은 12일 오전 8시 40분(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 패밀리필드에서 열리는 2021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지난 4월 24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첫 승을 수확한 김광현은 시즌 2승째 수확에 도전한다. 올 시즌 4경기 선발 등판한 김광현이 승리 투수가 된 것은 지난달 24일 신시내티전이 유일하다.

김광현은 시즌 첫 등판인 4월 18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3이닝 3실점으로 아쉬운 투구를 했다. 첫 승을 거둔 뒤인 4월 30일 필라델피아전에서 5이닝 7피안타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했으나 승리가 불발됐다.

지난 6일 뉴욕 메츠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로 나선 김광현은 4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잘 던졌으나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대타로



교체돼 승리를 놓쳤다. 승수는 1승에 불과하지만 김광현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는 모두 승리를 거둬 김광현 등판 = 승리 공식이 만들어졌다. 지난해까지 범위를 넓혀도 김광현이 마운드에 오른 날 세인트루이스는 좋은 결과를 냈다. 지난해와 올해 김광현이 선발 등판한 11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는 9승 2패를 거뒀다.

올해 4경기째 이어진 김광현 등판 = 승리 공식이 이어진다면 세인트루이스는 4연승을 달린다. 전날 콜로라도 로키스를 2-0으로 꺾고 3연승을 달린 세인트루이스는 21승 14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를 질주 중이다.

김광현은 선발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도 도전장을 던진다. 김광현은 지난해 MLB에 데뷔한 이래 패전 투수가 된 적이 없다.

지난 시즌 3승 무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62의 성적을 거둔 김광현은 올해 1승 무패 평균자책점 3.06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밀워키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지난해 밀워키전에 두 차례 선발 등판해 1승 무패 평균자책점 0.75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5일 밀워키전에서 7이닝 3피안타 6탈삼진 3볼넷 무실점으로 패투를 펼쳤다. 당시 타선이 힘을 내지 못해 팀이 1-2로 지면서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다.

김광현은 지난해 9월 25일 밀워키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 5피안타 3탈삼진 2볼넷 1실점으로 호투하고 시즌 3승째를 수확했다.

한편 KBO리그와 메이저리그 통산 1498탈삼진을 기록 중인 김광현은 삼진 2개를 추가하면 한·미 통산 1500탈삼진 고지에 오르게 된다. /뉴시스

고진영·박인비·김세영 女골프랭킹 1·2·3위 유지

7위 김효주 유지·유소연 15위·이정은 18위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들이 여전히 1, 2, 3위를 유지했다.

고진영(26·사진)과 박인비(33), 김세영(28)은 10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여전히 1, 2, 3위를 달렸다. 김효주(26)는 7위를 유지했다.

고진영은 9.64를 기록해 박인비(8.75)에 크게 앞서고 있다.

넬리 코르다(미국)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이틀리스트에서 우승한 에리



야 쥘타누간(태국)은 33위에서 21위로 올랐다. 유소연(31)은 15위, 이정은(25)은 18위, 강하나(29)는 19위, 박성현(28)은 20위에 올라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7회 교촌 하니 레이디스에서 우승한 박보미(29)는 세계랭킹 242위에서 147위로 순위 상승했다. /뉴시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해주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

위드 앤시